

	히브리 9-10
	Tape #C2300
	척 스미스
	히브리 9장
	<p>히브리 8장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하나님께서 돌비에 기록한 구약과 달리 백성들과 새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의 심비에 기록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언약을 설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새언약을 설립하시기 위해서 첫번 언약은 제쳐 놓는 다는 뜻입니다.</p>
	<p>예수께서 유월절 만찬을 거행하실때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태복음 26:28) 그래서 구약은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하는 (덮어두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언약을 설치하셨는데 이것은 돌비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의 심비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설립하시기 위해서 첫번 언약을 제쳐 놓은 것입니다.</p>
	<p>그래서 9장에 계속하여 8장의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율법으로 맺어진 첫언약에 대조하여 새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아래 맺어진 언약을 기억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들이 율법을 행하면 그율법에 의하여 살리라”라고 하셨습니다.</p> <p>율법의 첫언약에서는 “만일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모든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 될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언약은 사람의 순종과 사람의 신실성에 기초를 두고 설립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언약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옛언약은 실패했습니다. 율법이 선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도 아니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서 그런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 언약하여 그 율법을 지킬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p> <p>새언약은 영원토록 설립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p>
	<p>첫 언약에도 십기는 예 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히9:1)</p>
	<p>그래서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며 그는 회막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막안에서 제사장에 의하여 하나님을 경배 하였습니다.</p>
	<p>히 9:2)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고</p>

<p>그래서 먼저 이회막안에는 천막집이 있는데 길이45피터 넓이 30피터 그리고 높이15피터 크기의 장방형모양인 천막이 있습니다.</p> <p>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천막과 같은 것은 아니고 모퉁이에서 높이가 15 피터 길이가 40피터 그리고 넓이가 30피터 되는 천막으로 된 집입니다.</p>
<p>이제 이천막의 내부를 살펴보면 두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그 천막의 동쪽으로 향한 베일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길이30피터 그리고 넓이 15피터의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방의 오른쪽에는 12개의 진설병이 놓여있는 책상이 있습니다. 그 떡 하나마다 이스라엘의 각족속을 대표하는 것입니다.</p>
<p>그다음 방으로 들어가기 전 베일앞 맞은 편에 향단이 있는데 제사장이 들어와서 거기서 향을 피워 올리는 일을 합니다. 이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대표하는 것이며 제사장은 그 향은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봉사하는 입니다.</p>
<p>그첫방의 왼쪽에는 일곱가지가 달린 불이 켜진 금 촛대를 볼수 있습니다. 이가지 끝에는 작은 기름이 담긴 컵이 있고 그속에 심지가 있어 계속 그방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물건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노라 혹은 촛대에서 나오는 일곱가지 마다 각각 컵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7가지 혹은 성령의 완전한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p> <p>이제 이곳에 향단이 있고 금촛대가있으며 그리고 진설병이 놓인 책상이 있습니다. 여기를 성소라고 부릅니다.</p>
<p><i>또 들 제 휘 장 뒤 에 있는 장 막 을 지 성 소 라 일 켜 나 니 9:4 금 향 로 와 사 면 을 금 으 로 짠 언 약 께 가 있 고 그 안 에 만 나 를 담 은 금 향 아 리 와 아 론 의 짝 난 지 광 이 와 언 약 의 비 석 들 이 있 고 (히9:3-4)</i></p>
<p>이 언약궤는 참으로 흥미있는 가구 입니다. 만일 내가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기에 손을 댈것인지아닌지 나는 잘 모르 겠읍니다. 그러나 그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광야에서 먹인 만나가 담긴 그릇이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족을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가족으로 택하신 것을 확인 하는 아론의 짝난 지광이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하신 두돌판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물건입니다. 이가구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 겠읍니까? 이것들이 언약궤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신 언약이 이것에 기초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고 대제사장인 아론의 제사장직의 임무에 순종하는 것입니다.</p>
<p><i>9:5 그 위 에 속 죄 소 를 덮 는 영 광 의 그 룹 들 이 있 으 니 이 것 들 에 관 하 여 는 이 제 날 날 이 말 할 수 없 노 라</i></p>
<p>이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룹천사들에 의해 둘러 쌓여 있는 것과 같은 하늘의 모형인 것입니다.</p>
<p>그리고 말씀하시를</p>
<p><i>그 위 에 속 죄 소 를 덮 는 영 광 의 그 룹 들 이 있 으 니 이 것 들 에 관 하 여 는 이 제 날 날 이 말 할 수 없 노 라9:6 이 모 든 것 을 이 같 이 예 비 하</i></p>

<p>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행하고</p>
<p>제사장들이 매일 첫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행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진설병을 새것으로 바꾸고 매일 촛대의 심지를 짜르고 기름을 컵에 채워 붓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불이 그의 앞에서 계속 밝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백성들의 기도를 올리며 그리고 작은 금대접들은 향로를 담은 그릇들이 었읍니다. 그들이 밖에서 희생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피울때 거기서 불타는 솥을 가져다 향이담긴 작은 그릇에 담고 성소로 들어가서 향단 앞에서 쇠줄이 달린 향로 대접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올리는 기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그들이 매일 하는 것입니다.</p>
<p>날마다 드리는 희생제사의 숫자와 제사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백명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여러가지 다른 형태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루종일 정규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의 일로 아주 바쁜 것입니다.</p>
<p>누가복음에서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스가랴가 아비야의 반렬에 따른 제사장이 었읍니다. 이때가 주님의 제단 앞에 향과 기도를 올리는 직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때었읍니다. 제사장은 일년에 한달씩 봉사 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냅니다. 스가랴가 주님의 제단 앞에서 향을 올리고 있을때에 가브리엘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나이가 많은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야기를 낳아 메시아 앞서 가서 그길을 평탄케 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읍니다.</p>
<p>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기전 성소에서 하나님을 봉사함에 대해서 조금 읽을 수가 있습니다.</p>
<p>지성소는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수 없는 장소 인 것입니다. 그것도 속죄의 날(욘키퍼)에 일년에 한번밖에 들어 갈수 없읍니다. 그날이 어제 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회막도 없고 성전도 없으면서 욘키퍼를 속죄의 날에서 반성의 날로 바꾸웠읍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이날 하루만 들어갈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데 이날 두번 들어 갈수 있습니다.</p>
<p>첫번은 자신이 목욕을 하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소를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잡은 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는 특수한 예법에 따라 짐승의 피를 시은좌에 뿌립니다. 시은좌 앞에 일곱번 뿌리고 그리고 구석에 놓아 둡니다. 여기서 정규적인 예법을 따라 행합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속죄일에 관한것과 그날에 대제사장이 해야 될일들이 자세이 기록 되어있읍니다. 자신의 죄를 위하여 수송아지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 입고 두염소를 가져다 제비를 뽑고 뽑힌 염소를 죽여 백성들의</p>

<p>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염소는 제사장이 속죄염소로써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p>
<p>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두 염소위에 고백하고 한 염소는 죽여 이하루에 대제사장이 두번째로 지성소에 들어 가서 첫번째 제비 뽑힌 염소의 피를 가지고 시은좌에 뿌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고백한 다른 염소는 광야로 보내어 도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보내어 자유롭게 달아나게 하는 것은 죄를 위한 희생을 뜻하며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한다는 관념이 있는 것입니다.</p> <p>그런데 실제로 죄에서 격리되는 것 즉 염소를 광야에 풀어주어 사라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염소는 죽이고 다른 염소는 광야로 풀어주는것입니다.</p>
<p>“이제 두번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홀로 일년에 한번씩 들어가는데 첫번째는 자신의죄를 위해서 두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없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p>
<p>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히9:8)</p>
<p>회막이 서있는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접근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하나님께 나아 갈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부터 두터운 베일로 격리 되어있는 것입니다.</p>
<p>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때에 이막이 위에서 부터 아래까지 찢여진 의미 심장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고 있습니다. 이막은 하나님께서 찢어신 것입니다.</p> <p>만일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 부터 위로 찢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실때에 그 베일을 찢어신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 올수 있는 길을 터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수 있게 되었습니다.</p> <p>우리를 대신 하여 행하신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나아갈수 있게 된것입니다.</p> <p>첫회막이 서있는한 성령께서 지성소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이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p>
<p>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수 없나니</p> <p>9:10 이런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 까지 맡겨둔 것이니라</p> <p>9:11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p> <p>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9:9-12)</p>
<p>대제사장이 매년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 백성들의 죄를</p>

<p>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매년 행하는일에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곳에 단번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회막은 단지 하늘것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에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피로 희생제사를 드리며 동시에 희생제물도 되신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렸으며 자신이 제물도 되시는 것입니다.</p>
<p>이제 당신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왔다면 그는 당신을 위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쪽 모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제물도 되시고 그의 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도 되십니다. 그리하여 사람을구속하신 것입니다.</p>
<p>염 소 와 황 소 의 피 와 밧 암 송 아 지 의 재 로 부 정 한 자 에 게 뿌 려 그 육 체 를 정 결 케 하 여 거 룝 케 하 거 든 9:14 하 물 며 영 원 하 신 성 령 으 로 말 미 암 아 흠 없 는 자 기 를 하 나 님 께 드 린 그 리 스 도 의 피 가 어 쯤 너 희 양 심 으 로 죽 은 행 실 에 서 께 꺾 하 게 하 고 살 아 계 신 하 나 님 을 섬 기 게 못 하 겠 느 뇨 (히9:13-14)</p>
<p>제사장에 의해서 드러지는 희생제사의 약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할따름이며 매년 그것을 행하는 사실은 우리의 양심에 계속해서 죄책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그리스도께서는 흠도 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릴때에 그의피로 우리를 위한 속죄를 위해 단번에 들어가서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해 주시는 것입니다.</p>
<p>그들이 양을 하나님께 드릴때에 하나님께서는 못쓰게 된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아주 늙은 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소는 늙어 그반 죽게 되었는데 이소를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을까 생각 끝에 하나님께 드리자 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실로 비극 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쓰지 못할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물건이 좋지 못하여 더이상쓸수 없으니 하나님께나 바치자”</p>
<p>나는 어떤 농부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그는 어느날 아침식사때에 그의 아내에게 선언하기를 그의 암소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주 감사해서 그중 한마리는 주님께 드리고 다른 한마리는 내가 갖겠다”라고 선언 했습니다. 그 아내는말하기를”그것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라고 했습니다. 그 소들이 점점자라서 팔수있는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아내가 묻기를 어느소가 주님것이고 어느 소가 당신것이냐고 물었을때에 그농부는 대답하기를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한마리는 주님의 것 그리고 다른 한마리는 나의 것인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것이 주님의 것이며 또 자기 것이라 결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들은 똑같은데 그러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날 아침에 그가 황급히 들어오더니 “아주 나쁜일이 생겼어- 하나님의 소가 죽어 버렸어” 라고말했습니다</p>

하나님께서서는 버려진 것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양을 제물로 바칠때에 점없는 것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흠도 없어야 합니다. 흠은 후천적으로 생긴 것이고 점은 선천 적으로 생긴것이며 유전인자와 관계 됩니다. 양이 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늑대에게 핏함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절벽에서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걸려 생긴 것입니다. 양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선천적 결핍이나 후천적 결핍인 점도 흠도 없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조상의 유전한 망령된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것이나라” (벧전1:18-19)

실제로 예수님께 대해서만 점이없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천적인 죄가 없이 태어 났습니다. 그의 속에는 선천적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유전인자가 근본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는다는 사실은 아주흥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유전인자가 형성한 피는 하나님께로 부터 직접온 것이며 사람속에 선천적 결핍에 의하여 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없이 순수하게 태어나신것 뿐만 아니라 계속 순결하게 사신 것이기 때문에 흠도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이 희생양의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우리는 점도있고 점이 없다 할찌라도 우리는 후천적 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위한 희생양이 될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점도 없고 흠이 없어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릴수 있으며 죽은 일로 부터 당신의 양심을 깨끗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봉사할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기의 육신의 일을 하나님께 바치고져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행이도 바로 그러한 일을 오늘날 유대인 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속죄의 날이 었습니다. 죄에대한 희생제물도 없고 제사도 없습니다. 양을 죽이는 일도 없습니다. 염소나 송아지를 죽이는 일도 없습니다.

그들은 집에 앉아 그들의 삶에서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잘한 것들도 생각하여 그들이 기도 할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잘 한것을 생각하여 잘못된 것을 덮어 준다고 생각 합니다. 그들의 잘한일이 잘못된일을 능가할때에 그들은 마음에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유대인들은지난주 선한일을 많이하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한일이 악한일을 능가하므로 어제는 평안한 날이 될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러한 죽은 일을 제거하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봉사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를 인 하 여 그 는 새 언 약 의 중 보 니 이 는 첫 언 약 때 에 범 한 죄 를 속 하 려 고 죽 으 사 부 르 심 을 입 은 자 로 하 여 금 영 원 한 기 업 의 약 속 을 얻 게 하 려 하 심 이 니 라(히9:15)

이제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중보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약에서

<p>중보자인 것입니다.</p>
<p>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잔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나의 피로세운 새 언약이니라” 새언약 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인 첫언약에서 범죄한 우리의 허물을 구속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자면 영원한 유산의 약속을 받을 것입니다. 12절로 돌아가서 우리들은 영원한 구속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구속받은 자들은 영원한 유산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유산을 받는 일이얼마나 영광스런 일입니까?</p> <p>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1:3 “찬 송 하 리 로 다 우 리 주 예 수 그 리 스 도 의 아 버 지 하 나 님 이 그 많 으 신 공 홀 대 로 예 수 그 리 스 도 의 죽 은 자 가 운 데 서 부 활 하 심 으 로 말 미 암 아 우 리 를 거 듭 나 게 하 사 산 소 망 이 있 게 하 시 며 1:4 썩 지 않 고 더 럽 지 않 고 쇠 하 지 아 니 하 는 기 업 을 잇 게 하 시 나 니 곧 너 희 를 위 하 여 하 늘 에 간 직 하 신 것 이 라 1:5 너 희 가 말 세 에 나 타 내 기 로 예 비 하 신 구 원 을 얻 기 위 하 여 믿 음 으 로 말 미 암 아 하 나 님 의 능 력 으 로 보 호 하 심 을 입 었 나 니 이 영원한 기업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입니다.</p>
<p>사도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의 후사가 된 영광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p>
<p>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9:17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 효력이 없느니라 (9:16-17)</p>
<p>유언한자가 죽기전에는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지못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유언과 유언장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는 내재산이 여차히 분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유언은 유언한 당사자가 죽기까지는 아무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새언약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러나 죽기전에는 그언약이 실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영광스런 언약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p>
<p>이 러 므 로 첫 언 약 도 피 없 이 세 운 것 이 아 니 니 9:19 모 세 가 율 법 대 로 모 든 계 명 을 온 백 성 에 게 말 한 후 에 송 아 지 와 염 소 의 피 와 밧 물 과 붉 은 양 털 과 우 슬 초 를 취 하 여 그</p>

<p>책 과 온 백 성 에 게 뿌 려 9:20 이 르 되 이 는 하 나 님 이 너 희 에 게 명 하 신 언 약 의 피 라 하 고 9:21 또 한 이 와 같 이 피 로 써 장 막 과 섬 기 는 일 에 쓰 는 모 든 그 릇 에 뿌 렸 느 니 라 9:22 율 법 을 좇 아 거 의 모 든 물 건 이 피 로 써 정 결 케 되 나 니 피 흘 림 이 없 은 즉 사 함 이 없 느 니 라 (9:18-22)</p>
<p>모세가 모든것을 설립하였을때 이얼마나 중요한 선언을 하였는지요, 그가 염소를 죽여 피를 물과 섞어서 사람들에게 뿌리며 책에 뿌리고 그리고 모든 장소에 뿌려 거룩히 구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효력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흘리신 피로 곧 언약의 피로 그효력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피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로 부터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언약이 효력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피가 그효력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p>
<p>바로 이이유 때문에 오늘날 아주 독실한 유대인들과의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실성에 대해서 의문이나 질문이 없습니다. 나는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 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아주 진지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행으 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을수있다 는데 동의할수 없습니다. 그 개념은 성경과 아주 상반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개념을 조사해 보면 그들은 아주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하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문제는 죄문 제인 것입니다. 나의 정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것 입니까 ? 성전도 없고 제사 도 없으며 피흘림도 없으 니 그들의 죄가 어떻게 없어 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첫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둘째언 약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p> <p>그들은 교리에 대해서 예수님 시대의 때와 같이 사람의 유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교리에 대해서 사람의 유전을 가르친다? 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유전은 너의 착한 행실로서 네죄를 대속 할수있다는 가르침이다. 너의악 보다 선을 더욱 행하면 된다. 그렇게만 하면 아무문제 없다라는 사고 방식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을 수있는 길 을 내셨습니다. 그길은 제사인 것입니다.</p>
<p>약 거의 2000년간 제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 심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후 곧 제사가 끊어지고 다시 시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들림받은 다음에 7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금 일 을 시작 하실때에 제사가 다시 시행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사를 다시금 시작 하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7년의 중반기에 매일드리 는 제 사와 예물을 금지 할것이며 라는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보아 짐작 할수있습 니 다. 그래서 그들은 경배하는 장소를 만들것이며 마지막 7년 기간동안 제사제도를 설립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성취해야 할 일로</p>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성경적으로 그들의 죄를 없이 할 기초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9:23)
다른 말로 한다면 이땅에 있는 것은 모델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함을 얻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들은 그자체가 소나 염소나 양보다 더좋은 희생제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 지아니하시고
그는 이땅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앞에 나타나시고(9:24)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9:26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계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9:28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번째 나타나시리라(9:25-28)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들어가셔서 나타 내실 것입니다. 그의 희생제사는 완전한 것이며 그러므로 한번만 드리면 되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단번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쳐 드린 것입니다
10 장
10:1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율법은 단지 앞으로 닥아올 좋은것의 그림자일 따름입니다. 크리스찬이 레위기와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유익한 점은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인 것

<p>입니다. 예수그리스도를 제물로써 바쳐드리는 것과 예수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역사 하실일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골로새 2장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p> <p>"우리 를 거 스 리 고 우리 를 대 적 하 는 의 문 에 쓴 증 서 를 도 말 하 시 고 제 하 여 버 리 사 십 자 가 에 못 박 으 시 고 2:15 정 사 와 권 세 를 벗 어 버 려 밝 히 드 러 내 시 고 십 자 가 로 승 리 하 셧 느 니 라" (골2;14-15)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2:17 이 것 들 은 장 래 일 의 그 림 자 이 나 몸 은 그 리 스 도 의 것 이 니 라 (골2;16-17)</p>
<p>그림자의 실체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이시점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그림자는 지난 역사를 덮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율법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지 그림자에 지나지않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의 오심에 대한 전조인 것입니다. 한번 주님이 오시면 그림자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체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그의 그림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p>
<p>그 령 지 아 니 하 면 섬 기 는 자 들 이 단 번 에 정 결 케 되 어 다 시 죄 를 깨 닫 는 일 이 없 으 리 니 어 찌 드 리 는 일 을 그 치 지 아 니 하 였 으 리 요(10:2)</p>
<p>다시 말해서 모세의 시대에 단번에 정결케 되었다면 날마다 짐승을 잡아 제사드리는 일을 계속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들이 일년에 한번씩 지성소에서 제사드리는 일을 하지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p>
<p>"어찌드리는 일을그치지아니 하였으리요" (10;2)</p>
<p>10:2 그 령 지 아 니 하 면 섬 기 는 자 들 이 단 번 에 정 결 케 되 어 다 시 죄 를 깨 닫 는 일 이 없 으 리 니 (10;2)</p>
<p>지금 이것은 구약 시대 아래있는 것입니다. 만일 정결케하는 일이 효과가 있었다면 한번 정결함을 받았으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깨끗함을 받는 일이 없음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나 영광스런 사실은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깨끗함을 받으면 우리는 죄책을 더이상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깨끗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되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말에서 이것은 현재 완전한 현재형 시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죄로 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정결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속 깨끗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런 일입니까?</p>
<p>10:3 그 러 나 이 제 사 들 은 해 마 다 죄 를 생 각 하 게 하 는 것 이 있</p>

<p>나 니 (10:3)</p>
<p>매년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때 우리의 죄가 기억나고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p>
<p>10:4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p>
<p>당신의 죄를 실제로 없이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코파”라고 부르는데 죄를 덮는 다는 뜻입니다. 히브리말에서 코파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속죄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것이 좋은 번역은 아닌것 같습니다. 죄를 “덮는다”라고 번역했어야 될것입니다.그들의 죄를 덮는것입니다. 제사로 말미암아 단지 그들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p>
<p>10:5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p>
<p>이말씀은 시편 40편6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용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란 뜻입니다. 이것이 킹제임스에는 없지만 70인 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p>
<p>70인역은그리스도의 탄생전 200년경에 70인의 학자가 뭉여 구약을 히브리말에서 헬라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 히브리말이 그의 죽었을때 었습니다. 그때에 성경학자들만 히브리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히브리 말을 사용 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은 코인어나 헬라어를 사용했 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말은 성경학자들만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학자들이 평민들이 이해하는 말로된 성경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히브리 말로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70인역을 읽을때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것은 히브리말로된 구약성경을 70인의 성경학자들이 헬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전 200경에 번역한 성경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p>
<p>다른 사람들이 신약에서 인용하듯이 70인 역에서 인용해보면 “예물과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혹은 하나님은 예물과 제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몸을 예비하셨도다”</p>
<p>그말씀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한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몸으로 사람을 위하여 완전하고 무험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p>
<p>10:6 전 체로 번 제 함 과 속 죄 제 는 기 빼 하 지 아 니 하 시 나 니 10:7 이 에 내 가 말 하 기 를 하 나 님 이 여 ! 보 시 읍 소 서 두 루 마 리 책 에 나 를 가 리 켜 기 록 한 것 과 같 이 하 나 님 의 뜻 을 행 하 러 왔 나 이 다 하 시 니 라 (10:6-7)</p>
<p>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언이었는데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것과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구약성경의 모든</p>

<p>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여러모양의 형태와 그림자의 모든 것과 이책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 서로 얽혀 있는 한가닥의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 시킴에 있어서 하나의 계속적인 이야기로 된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예언이나 소망들이나 모든 인물들의표현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p>
<p>여기서 번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다섯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제사들은 그목적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귀을 갖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사귀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땅위에서 하시고져 하시는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함께 협조 하는데 있습니다.</p>
<p>이제 죄가 사람과 하나님을 갈라 놓았습니다. 죄가 사람을 하나님께로 부터 격리케 해 놓았습니다. 죄많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p>
<p>바울은 아주 부패한 도시에 사는 고린도인 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고린도인이라는 말은 아주 타락한 사람과 동의어로 사용 되었습니다. 밤마다 수천명의 여자중들이 고린도 위에 위치한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아프로다이트 신전으로 부터 고린도 시내로 내려 옵니다. 이여중들은 다름아닌 창녀들입니다. 여러 수천명의 창녀들이 길거리로 다니며 밤마다 음행을 하는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창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경고하기를 “창기와 합하는 것이 그와 하나가 되는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 라면 그리스도로 하여금 창기와 합하는데 참여케 함을 알지 모사느냐” 그는 말하기를 “너희가 그럴수 없느니라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수있느냐?” 바울은 이러한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만일 당신이 나가서 죄를 짓는다면 당신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을 그기에 동참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귀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귀을 갖기전에 죄를 없이해야 하는 것입니다.</p>
<p>첫언약에서 죄문제를 다루는데 두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속죄제 입니다. 이제사는 일반적인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둘째제사는 속건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고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한 제사 입니다. 그것은 희생제물도 다른 형태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사귀을 갖기 전에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속죄제와 속건죄를 드린 다음에 번제를 드릴수 있습니다.</p>
<p>여기서 번제와 속죄제를 볼수 있습니다.</p> <p>번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성결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로써 나의 생활을 하나님께 온전히 버쳐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음은 소제인데 내가 농사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나의 봉사의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p>
<p>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기 사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p>

<p>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없어지고 허물도 없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활과 나의 봉사를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앉아 먹는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은혜로써 대접하는 자가 되어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먹으며 우리가 함께 식사하며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같은 양고기를 먹으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러한 사귀는 게 되는 것입니다.</p>
<p>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희생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실증이 나셨습니다.</p>
<p>10:8 위 에 말 씀 하 시 기 를 제 사 와 예 물 과 전 체 로 번 제 함 과 속 죄 제 는 원 치 도 아 니 하 고 기 빼 하 지 도 아 니 하 신 다 하 셧 고 (이 는 다 율 법 을 따 라 드 리 는 것 이 라) 10:9 그 후 에 말 씀 하 시 기 를 보 시 읍 소 서 내 가 하 나 님 의 뜻 을 행 하 려 왔 나 이 다 하 셧 으 겠 니 그 첫 것 을 폐 하 심 은 둘 제 것 을 세 우 려 하 심 이 니 라(10:8-9).</p>
<p>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우신 첫번 언약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언약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 갈수 없습니다.</p>
<p>항상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겨룰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 저것 들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당신의 수준에서 흥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결코 성취될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갈수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위에 자신을 던지며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수준에 맞추어 하나님께 나아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p>
<p>구약은 무효화되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더효과가 없습니다. 새 언약을 설립함에 있어서 먼저 첫번 언약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둘째 언약 을 설치하실 것입니다.</p>
<p>10:10 이 뜻 을 좇 아 예 수 그 리 스 도 의 몸 을 단 번 에 드 리 심 으 로 말 미 암 아 우 리 가 거 록 함 을 얻 었 노 라(10:10)</p>
<p>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화평이시요 나의 의가 되시며 그는 또한 나의 속죄 제물이 되시며 그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중보자시며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갈수도 없고 하나님으로 부터 격리 되어 있습니다. 나는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망이요 구제 불능입니다.</p>
<p>10:11 제 사 장 마 다 매 일 서 서 섬 기 며 자 주 같 은 제 사 를 드 리 되 이</p>

<p>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p>
<p>제사장들은 아주 바쁩니다. 그들은 속죄제를 하루종일 계속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사람들이 올때에 소제도 계속해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p>
<p>10: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p>
<p>주님의 제사는 완전 했습니다. 주님은 매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계속 반복해서 십자가에 못박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 한번으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십니다.</p>
<p>10:13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0:14 저가 한 제물로 기록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p>
<p>이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의 한번 드리신 제사로 우리가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p>
<p>10:15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0:16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10:17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p>
<p>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시편 32:1-2)</p> <p>이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은 “아멘” 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 하심을 받은 자는 얼마나 복이 있는 자입니까?</p>
<p>10:18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p>
<p>한번 이미 모든 죄용서 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었으면 더이상 죄에 대한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p>
<p>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p>
<p>나는 주님께서 들어가신 곳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 간다는 것은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와 사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p>

<p>그래서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가자”</p>
<p>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10:21 또 하나님 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10: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10:23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p>
<p>이제 새언약을 살펴 보십시오. 미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새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p>
<p>위험한것은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을 이끌고 제사장에게 와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다시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위험한 일입니다.</p>
<p>특히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의 유전이 얼마나 깊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과소 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안식이을 지키고 코셔의 음식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전 가운데 뿌리 내려진 한 부분이므로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된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더이상 유대인이 되지 않을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되는 것이 완전한 유대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여태껏 유대인 으 로써 행사해온 자신 보다 더좋은 유대인이 된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랍비는 말하기를 유대인이 크리스찬이 될수 없고 크리스찬이되면 유대인이 될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둘다 동시에 될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민족의 특수성을 유지하고 보호 하려고 안간 힘을 다하여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신이 그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 입니다.</p>
<p>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크리스찬이라고 선언한 자들중에 어떤자들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 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바 그믿음을 굳게 잡고 있어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금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은 미쁘시기 때문입 니다.</p>
<p>10: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p>
<p>그래서 우리들이 뭉일때에 서로 사랑하며 선한일에 서로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p>
<p>10:25 모 이 기 를 폐 하 는 어 떤 사 람 들 의 습 관 과 같 이 하 지 말 고 오 직 권 하 여 그 날 이 가 까 움 을 볼 수 록 더 욱 그 리 하 자</p>
<p>서로를 생각하며 서로 사랑과 선한 일들을 권장해야 합니다. 뭉이기를 폐하는</p>

수년전에 내가 어떤 왕국을 계승할 놀라운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왕국을 이을 후계자인 왕자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왕후가 된 왕비가 그의 사랑을 받을만한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여자라는 것이 증명 되었습니다.

그여인이 왕자를 떠나 왕자를 반역하는 지도자와 공중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간음을 하며 살았습니다.

왕을 반역하는 무리들을 정복시키고 그 왕비를 대려다 재판관을 하여 그도시의 밖에 있는 호랑이 소굴에다 던져 넣기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나무를 베고 호랑이 소굴을 만들어 놓고 그소굴 가운데다 기둥을 세워 사형수들을 그 기둥에 묶어 놓는 것입니다.

밤에 호랑이 들이 사람의 고기 냄새를 맡고 그곳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잡아 먹는 것입니다.

사형날자가 이르렀을때에 그여인을 숲으로 데려가서 호랑이 소굴 가운데 있는 기둥에다 묶어 놓고 밤에 그여인의 운명에 맡겨 놓았던 것입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 질때에 그여인은 그여인의 머리 위에서 자갈을 밟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여인이 위를 쳐다 보았더니 호랑이가 아닌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사람은 호랑이 소굴로 뛰어내렸습니다, 그여자가 보았더니 자기가 배반한 자기 남편인 왕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여인은 그를 향하여 성난 목소리로 “당신이 내가 처참이 죽는 꼴을 보고 조롱하러 왔구나“ 라고 소리 질렀을때에 그왕자의 대답이 ‘아니요 내가 항상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증명하러 왔소 당신은 결코 그것을 이해 못할 것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때에 위에서 또 자갈 소리가 나서 보니 이번에는 사람 고기 냄새를 맡고 사람을 잡아 먹으려고 한마리의 호랑이가 내려 오고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그주위를 빙빙 돌다가 호랑이 소굴인 마른 웅덩이로 뛰어 내려 와서 왕비에게 달려들지 않고 왕자에게 뛰어 내렸습니다. 이왕자는 칼을 뽑아 밤새도록 호랑이와 싸웠습니다. 이왕후는 드디어 마지막의 숨을 거두는 소리를 듣고 계속 피방울만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이 밝은 후 사람들이 왕후의 시체를 묘에 묻어려고 와 보았더니 놀라운 사건이 일어 났습니다. 죄수인 왕후는 아무 탈이 없이 호랑이 소굴의 마른 웅덩이 가운데 있는 기둥에 그대로 묶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 피투성이가 되어 그의 죽게된 사랑하는 그들의 왕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죽은 호랑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자를 급히 옮겨 그왕국의 가장 훌륭한 의사에게 맡겨 치료케 하였습니다. 그왕자는 삼일동안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병의사태를 시시각각 계서관에 붙여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왕자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안간 힘을 다 하였습니다. 드디어 삼일째 그왕자는 위기를 모면 하고 다시 생명을 되찾는다는 희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그왕국이 모든 백성들은 기뻐 했습니다

그동안 이왕후는 법정의 판결대로 처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후를 강금하여 두고 다시금 재판에 부치게 되었습니다. 그여인을 다시금 재판석에 끌어내여 판결을 언도하는 선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왕후에 대한 판결을 듣기 위해서 그왕국의 모든 백성들이 큰 광장에 몰려 들었습니다. 그 판결의 언도를 선언 하

